건설근로자공제회
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23.(화) 10:00 2022. 8. 23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8. 23.(화) 10:00
담당 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관리팀	책임자	팀 장 박수훈 (02-519-2131)
		담당자	대 리 임청록 (02-519-2133)

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 전자카드제 확대 도입

- 건설근로자공제회-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 -

□ 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, 이하 '공제회')와 현대건설(주)(대표이사 윤영준)는 "건설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"을 체결했다.

○ 이번 협약으로 현대건설의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출입 인원이 전자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할 예정이다.

□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, 이중 '20년 11월 「건설근로자법」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이다.

○ 오늘 협약으로 9월부터는 전자카드제가 적용되지 않던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,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루어진다.

○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한 일원화된 출입 관리를 실시한다.

□ 공제회는 현대건설 전체 사업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발급과 함께 현장담당자를 위한 업무처리 교육*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* 현대건설 전국 시공 사업장의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10월까지 전자카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교육 추진 예정

○ 또한, 현장별 전자카드 근무 정보를 자체적인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관리 분야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현대건설 본사에서는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카드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출입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각종 현장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,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.

○ 기존 현대건설 자체 출입관리시스템은 현장 출입 근로자의 신원 확인·등록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, 현장마다 다른 방식을 활용해 통일된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불편을 본사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.

□ 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는 “국내 최고의 건설업체가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도입을 결정하여, 앞으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하며 “앞으로도 현대건설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 문화를 선도해달라”라고 말했다.

□ 현대건설을 대표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추영기 안전사업지원실장은 “전자카드제를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인력관리를 실현하여 원칙이 바로 선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